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갈첩

# 새보람

Saeboram



시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5월 285호

(02)796-4280 www.kappd.or.kr

<p><b>지정인과 함께 하는 희망의 동반자</b></p> <p>공약은 거짓에 의해 실현되나</p> <p><b>뉴스 제8대 중앙회장 선거 ▶3P</b></p>	<p><b>특집</b></p> <p>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 현장스케치</p> <p><b>▶12P</b></p>	<p><b>국제</b></p> <p>자연스러운 터치감 로봇 핸드 개발</p> <p><b>▶15P</b></p>	<p><b>인물</b></p> <p>휠체어마라토너 김규대</p> <p><b>▶19P</b></p>
--	--	---	--

##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마르셀 허그 우승 ... 풀마라톤 1시간 24분 46초 결승선 통과 대한민국 육상 간판 홍석만, 국내 선수 1위 기록

지난 4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스위스의 마르셀 허그(31, Marcel Hug)가 영광의 월계관을 썼다.

마르셀 허그는 이날 1시간 24분 46초로 42.195km 풀마라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그는 "우승해서 기쁘다"며 "휠체어 육상의 꿈을 키우는 많은 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와타나베 쇼(27, Watanabe Sho)와 호키노우에 코타(43, Hokinoue Kota)가 각각 2, 3위로 들어왔다.

국내 선수 중에는 홍석만이 1시간 35분 13초로 가장 빠르게 들어왔다. 홍석만은 "동료들과 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많은 선수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동

호와 김규대가 국내 2, 3위를 기록했다.

하프마라톤은 일본의 히로미치 준이 49분 11초로 우승했고, 한국의 유병훈과 일본의 다케

그 밖에 휠체어생활체육 선수들은 5km 경쟁 부문을 통해 기량을 발휘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달린 비경쟁 레이스 5km 어울림 부문은 화합의

정진우 감독을 비롯한 축구단원 알베르토, 한재석, 김종욱 등 15명도 어울림 부문을 함께 달려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대회 부대공연으로는 공군 블

객 등 총 1만 5천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선수 안전에 최적화된 노선관리와 시민들의 교통 통제 협조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원활하게 치러졌다.

김광환 대회장은 폐회식에서 "명승부를 펼친 세계 19개국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차별 없는 깊은 우정을 다진 오늘의 감동을 널리 알려 사회통합을 앞당기자"고 역설했다.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공인대회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대한약사회, KBS가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12면에 계속>



▲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풀마라톤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무라 고키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 하프마라톤으로 데뷔한 온윤호가 국내 선수 중 2위로 들어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축제로 펼쳐졌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홍보대사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심권호가 참가했고 FC어벤져스 연예인축구단

랙이글스팀이 에어쇼를 펼쳤고, 경기장 안에서는 슈퍼모델 최유슬, 하수진, 홍주희가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한편 선수 및 자원봉사자, 관

##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개관 지역 장애인에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할 것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관장 최재천)이 4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에는 단체장, 지역 장애인과 주민 등 약 1200명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함께 했다. 개관식은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의 법인 이사장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개관사를 시작으로 권선택 시장, 설동호 교육감, 한현택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선용 의장, 이장우 국회의원의 기념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이 4월 20일 개관했다.

또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축적해 온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전 동구의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이용은 전화(042-282-9600)로 문의하면 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교육, 의료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장애인, 아동,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르는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복지 정책 설계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장애인 대선공약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추미애 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장애인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장애인 정책 주요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 장애인 정책 주요 5대 공약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한다.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고 지원한다.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자금을 지원하며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에 유

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한다.

◆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한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에게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확대한다.

◆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 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인에게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예산을 증액한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극복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새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 ‘다름의 동행’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4월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오른쪽 두번째)

개최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훈포장 수여와 함께 올해 슬로건인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에 대한 캠페인 선포식도 진행됐다. 슬로건에는 ‘서로 다른 존재가 동행하면 더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았다.

황 권한대행은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선포식을 함께 했다.

황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과 보육,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확대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16명이 포상을 받았고, 3명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

로로 정화원 한국장애인소비자연대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이 목련장을 수훈했다.

이종성 사무총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민훈장을 수훈하게 되어 영광이다. 지장협 실무자로서 장애인복지와 지난 동안 장애인복지와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조직회원들의 노고를 대신해서 주신 것으로 무한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아동 안아술 양과 권상현 평창패럴림픽 스키 선수가 함께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선거

## 김광환·조향현 입후보... 31일 선거

오는 3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김광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과 조향현 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이 입후보했다.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인 5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추첨을 통해 김광환 후보가 1번, 조향현 후보가 2번으로 정해졌다. 이들 후보는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선거권자 422명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두 후보의 약력과 공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http://www.kap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회장 선거공보

지장협과 함께 하는  
희망의 동반자



1

김광환

기호

1

김 광 환

### 공약

-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중앙회장 소환제도 마련
- 협회장 및 지회장 임기 4년으로 통일
- 지방조직의 운영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 의회정치대학 운영
- 장기근속 조직원 포상 및 예우 확대
- 지체장애인 종합연수원 마련
-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익 신장 위한 (가칭)인권지킴이센터 지역별 운영
- 편의시설지원센터 역할과 고유 업무 대폭 확대(주택, 도로교통, 관광, BF인증 등)
- 지체장애인 보조기구 확대 및 보급 촉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의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통해 지역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정책위원회 설치

국립 강릉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공약은  
거짓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2

소통하는 지장협,  
30년 전통과 미래를 잇는 가교  
조향현

기호

2

조 향 현

### 공약

-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임기 4년으로 즉시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의 직책보조비 현실화 추진
- 시·군·구지회의 재정 안정을 위해 각 지회에 '장애인주차구역권익옹호센터' 설립 추진
- 편의시설지원센터 인권기초센터(지회)로 이양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장 3년 임기 보장
- 중앙회장 초도순시 폐지 등 수직적 권위주의 풍토 청산
- 회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 상곡(故 장기철 초대회장 아호) 기념사업 확대
-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추진
- 지역특화사업 개발 통해 시·군·구지회 안정적 운영 지원
- 중앙회가 주최하는 전국범위 사업 과감히 재정비
- 장애인당사자 정치세력화 및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부서 개방적 확대운동 펼쳐
- 장애인휴양시설 '메탈플레이스'(가칭) 건립 정부에 제안
- 소홀했던 장애인복지정책 연구개발 통해 지장협 위상 바로잡기

국립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 고령 장애인 주거환경 열악... “지원 시급”

### 고령 장애인 가구 98.7%가 저소득층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로 형성돼 있다. 이들의 주거 수준이 전체 장애인 평균 수준보다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8일 국토연구원은 〈고령 장애인 주거 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22만 5천가구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47.3%(105만 가구)로 추정됐다. 고령자만으

로 구성된 장애인 가구는 14%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은 78.1%로 일반 가구(35.6%)의 2배가 넘었다.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저소득층인 경우는 98.7%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자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51.5%로 전체 장애인 가

구(43.8%), 일반 가구(37.5%)보다 높았다.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 68.3%, 민간임대 15.1%, 공공임대 8.4%가 뒤를 이었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장애인 가구는 2.49점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 거주 2.58점, 공공임대 2.26점, 민간임대 2.13점을 기록했다. 주택에 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

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만족도는 1.96점에 불과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RIR)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주거관리비가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 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낀 장소는 욕실(27.6%)이었다. 현관(18.5%), 부엌(1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로 ‘주 출입구 계단 경사로(9.6%)’, ‘욕실 안전손잡이(7.3%)’, ‘현관 문턱 해결(6.7%)’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고령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 밀착형 주거 지원 정책 마련과 ▲지원을 통한 자활 유도를 제안했다.

이에 맞춰 정책 과제로 △체협주택 마련 △개보수 표준화 △높낮이 제거 의무사항으로 점차 확대 △주택개조비용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체협주택은 현재 국립재활원 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첨단 보조기기를 갖춘 실거주형 주택체험관이 운영 중이나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훈련의 목적이 크다. 따라서 생활밀착형으로 실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체협주택 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보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주택개조에 대한 비전문가라도 손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주택 개조의 문제점은 개조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고 장애인 본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로 시공업체의 기술 수준이 달라 개조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표준화해 주택개조 사업을 육성하고 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업체를 관리함으로써 주택개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장애인가구 소득계층별 분포

(단위 : %)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장애인가구	69.0	22.1	8.9	100.0
고령장애인가구	78.1	15.1	6.8	100.0
고령장애인만으로 구성	98.7	1.2	0.1	100.0
고령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구성	69.3	21.0	9.7	100.0
일반가구	35.6	46.2	18.2	100.0

주: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고령 장애인 가구 소득계층별 분포 ©국토연구원

## 세계지도와 국내 주요 도시 점자지도 나와 국토지리정보원, 맹인학교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

세계지도와 국내 6대 광역시,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담은 점자지도가 나왔다.

5월 7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그동안 자료가 없어 지리교육이 어려웠던 교사와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점자지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점자지도는 세계 150여개 국가 위치 정보와 산맥, 사막을 비

롯한 지리정보를 담아 대폭별로 확대 제작했다.

국내 주요도시 점자지도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6대 광역시와 제주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군·구 단위 행정구역과 지하철, 복지시설 위치도 표시했다.

점자지도는 전국 맹인학교와 점자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를 비롯한 130여개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점자 안내지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점자지도를 만지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 복지부,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자연재해 대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

검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된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전체 6만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건강관리 대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기준 달성”

‘지자체’와 ‘교육청’, 법정 기준 1%에 못 미쳐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2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그

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5312억원(1.13%)

으로 법정구매비율인 1%를 초과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사들일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외 14곳이 1%를 넘지 못했다. 세

특별자치시의 경우 0.21%에 불과했다.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대법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은 전년 대비 484억원이 증가한 57% 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총 구매액	우선 구매액(A)	우선 구매율(a)	총 구매액	우선 구매액(B)	우선 구매율(b)	우선구매액(B-A)	우선구매율(b-a)
합 계	454,748	4,640	1.02	468,179	5,312	1.13	672	0.11%p
국가기관	67,798	747	1.10	68,176	964	1.41	217	0.31%p
지자체	105,577	748	0.71	105,938	876	0.83	128	0.71%p
교육청	49,140	437	0.89	52,038	463	0.89	26	-
공기업 등	232,233	2,708	1.17	242,027	3,009	1.24	301	0.07%p

\* 구매율: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

▲ 2016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보건복지부

## 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UCC영상, 캠페인송... 7월 7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2017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 인식개선의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을 접수한다. 개인 또는 팀(최대 5인)을 구성해 40초 이상 1분 이내의 ‘UCC영상’이나 ‘캠페인송’을 제작하면 된다. UCC 영상은 다중미디어, 공익캠페인, 플래시몹, 스톱모션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며, 캠페인송

은 순수 창작 노래부터 내레이션, 동요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까지며, 지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erbnum.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작은 8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대상 1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UCC영상’과 ‘캠페인송’ 부문별 최우수 1팀에게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2팀

에게는 신한카드, YTN라디오 대표이사상과 상금 50만원, 입상 4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장애인재단의 인식개선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erbnum.org) 또는 전화(02-6399-6237)로 문의하면 된다.

2017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포스터.  
©한국장애인재단 ▶



## “난민 장애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난민 인정을 받은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소관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난민 장애인이 대한

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이주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파악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난민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를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

법과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자에는 난민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도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외국 국적 동

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인권협약과 국내법 등에서 인정된 난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개최

### 소통과 화합의 체육대회… 동두천시 우승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제23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4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마당에는 도내 장애인

인복지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내빈들과 장애인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이하 서울협회 손영호 협회장, 강원

협회 김흥수 협회장, 제주협회 부형중 협회장 등 시·도협회장이 참석했고 경기도 강득구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전해철·이현재·임종성·국회의원, 경기도 도의원·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장애인

들을 격려했다.

김기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소통과 화합의 장인 축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장애인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밝혔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27만 경기도 지체장애인이 체육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며 “축제한마당을 통해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장협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축제한

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 경기지장협이 ‘제23회 경기도장애인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 선언 후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과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어서 후원금 전달, 대회사, 격려사, 치사, 축사, 우승기 반납 및 계양, 선수대표 선서로 진행됐다.

2부에는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시·군 대항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남녀 휠체어경주, 배드민턴, 휠체어탁구 등 총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동두천시 선수단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 선수단이 2·3위에 올랐다.



## 지체장애인 돕기 바자회 성황

### 파주시지회, 롯데아울렛 파주점과 공동 주관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체장애인 돕기 바자회가 펼쳐졌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정희성, 이하 파주시지회)는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 동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공동주관으

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파주시지회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28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이번 바자회에는 윤후덕 국회의원, 최종환 경기도의원, 파주시의회 손희정 시의원, 손

배찬 시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사무처장, 파주시청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격려했다.

파주시지회가 지체장애인 돕기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 ‘2017 사랑나눔 콘서트’ 열려

### 안산시 장애인의 눈과 귀를 즐겁게

안산시 장애인의 화합을 지원하는 콘서트가 열렸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이하 안산시지회)는 4월 27일 안산플레이너에서 ‘2017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

해 장애인밴드를 비롯한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권태익 지회장은 “지역 장애인의 즐거운 교류와 화합의 자리였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안산시지회가 ‘2017 사랑나눔 콘서트’를 열고 지역 장애인의 화합을 지원했다.

## “나도 스마트폰 유저”

### 수원시지회, 장애인 스마트폰 교육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최종현, 이하 수원시지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8일 진행한 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의 네이비 지도

앱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 찾기 사용법을 설명했다. 또 목적지의 버스노선 찾는 방법과 지하철 길찾기 등 이동편의에 대해 상세히 강의

했다. 또 차량 보유자들을 위해 지

도앱에 포함된 네비게이션 기능 이용 교육과 쿠팡시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수원시지회는 매년 지역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교양교실, 예술교실, 문화교실들을 운영하고 있다.



▲ 수원시지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충남지장협)는 지난 4월 20일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

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자원봉사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

부 기념식과 2부 어울림 축제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역 장애인 15명

을 선정해 모범 장애인상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충청남도 모범 장애인 대상’을 받은 서산시 강경환(56) 씨는 군부대에서 유실된 지뢰 폭발 사고로 두 손을 잃은 1급 지체장애인이다. 강 씨는 염전 업을 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이 만든 소금을 전달하는 등 각종 선행을 실천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천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인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보장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지장협 이진휘 협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부여군으로 유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노력해준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부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해 기량을 겨루는 ‘장애인 가요제’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전시, 장애인 민원상담, 구강검진, 장애인보장구 수리 부스 등이 운영돼 편의를 제공했다.



▲ 충남지장협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 제주지장협 리더십 교육 실시

임직원 30여명 협회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동안 명도암유수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시간에는 제주장애인여성

상담소 김경미 소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정실 강사가 색채를 통한 심리치료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과 협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임직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둘째 날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감상범 사무처장이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함께 절물오름등반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형종 협회장은 “임직원이 협심해 지역 장애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지장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 김천시지회 “장애인 이동상담”

복지시책 상담 통해 현장 민원 해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가 장애인 종합민원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4월 26일 농소면사무소

에서 이동 상담실을 차린 후 농소면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상담을 진행했다.

변경된 장애인 복지시책을

습득하지 못한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회 사회복지사가 일대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최근 정보를 홍보하며 정보소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 김천시지회가 장애인 종합민원 이동상담을 진행했다.

## 포항시지회 여성장애인 ‘파크골프 교실’ 열어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하겠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 교실’이 열렸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이하 포항시지회)는 4월 26일 지역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초보자 교실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이 탁 트인 야외에서 파크

골프를 통해 건강한 취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경목 지회장은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여성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해 자신에게 맞는 체육종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성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 교실’이 열렸다.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장애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개최

“가정의 달 맞아 삶의 활기 찾으세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구지장협)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대구지장협은 매년 5월이 되면 대구 지역의 65세 이상 장애 노인을 초청해 잔치를 열어 왔다.

이번 잔치는 5월 13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했으며 장애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장협은 엑스코 앞마당에 행사장을 설치하고 한우국밥, 삼계탕, 돈가스, 과일, 떡 등

으로 식사를 대접했다. 참가자들은 식사를 하며 ‘온가족이 함께하는 주현미&신유 효 콘서트’를 관람했다.

잔치를 주최한 김창환 협회장은 “지역 장애인 중 고령 장애인이 늘어나는 만큼 장애 어르신을 위한 즐거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같은 행복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장협이 ‘장애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



## ‘신나게 행복하게’ 야외활동 아산장복, 장애아동과 현장학습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아산장복) 장애아동들은 지난 4월 27일 산들래 자연체험학교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날 장애아동 24명은 염소 먹이 주기 체험, 레일썰매타기, 난타체험, 트랙터 마차 타기 등의 다양한 야외활동을 경험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오니 좋다”며 “다음에 가족들과 와서 또 해보고 싶다”고 즐거움을 표현했다.

이창호 관장은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 접하고 스스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자존감을

향상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신나게 행복하게’와 관련한 사항은 아산장복 기능향상지원팀(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장복 장애아동이 산들래 자연체험학교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



## “성숙한 사랑을 위해”

괴산장복, 중증장애인 대상 성교육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 25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열린 교육의 주제는 ‘십대 연애’로 김금영 강사가 진행했다. 김금영 강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스킨

십, 데이트 에티켓 등을 설명했다. 또 교육에서는 데이트 성폭력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을 마련한 정효선 관장은 “장애인의 건전한 데이트 문화를 확산하고 성적자기결정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괴산장복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 홍성장복, 장애인의 날 기념잔치

“오늘은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날”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복천규, 이하 홍성장복)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복지관 직원들은 이용고객과 함께 자유롭

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직원들은 잔치를 축하하며 사비로 손수건과 손톱깎이를 100개 이상 준비했다. 또 지역의 후원 손길도 이어졌다.

개인과 업체 등에서 양말, 과

일, 치킨, 현금을 후원해 풍성한 잔치를 개최할 수 있었다.

홍성장복 관계자는 “작은 잔치를 통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홍성장복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해요”

### 처인장복,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참여형 축제 개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상구)은 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기획행사를 실시했다.

먼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처인구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용인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용인시내 금령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대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나무 만들기(지문트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씨앗 연필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우리 함께해요-이용고객 Day!’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용인버스킨 공연으로 ‘벌룬 퍼포먼스’와 복지관 프로그램 공연으로 피아노 및 기타 독주가 펼쳐졌다.

또 이용고객 듀엣 가요제를

통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한편 이날 식사는 ‘오! 셰프’ 중화요리집의 후원으로 특식을 제공했다.

행사를 마친한 복지관 담당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즐겁게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인장복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기획행사를 마련했다. ▶



## 부여장복, 봄맞이 인권 나들이 장애인 70여명 유원지 관람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여장복)은 4월 28일 장애인 자조모임 회원과 인권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나들이 행사는 부여장복 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 70명이 대전 ‘오-월드’로 향했다.

이번 나들이는 자조모임 회원과 복지관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중증 장애로 인해 나들이가 어

려왔던 장애인들은 광활한 유원지를 누비며 봄을 만끽했다.

참가 장애인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원을 관람했다. 또

물놀이 축제가 한창인 플라워랜드까지 관람하며 봄을 만끽했다. 이날 장애인들의 이동과 다양한 활동지원을 함께 한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들이에는 부여장복 정도기 관장도 내내 함께했다. 정 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영천장복, 난청 이웃에 보청기 지원

### 독일보청기와 연계... 난청인 삶의 질 개선 기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영천장복)이 지역 난청인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했다.

이번 보청기 지원은 영천 독일보청기(대표 이동현)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영천 독일보청기는 5월 11일

4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했다.

보청기를 받은 난청인들은 “옆집 사람의 웃음소리도 선명하게 잘 들린다”며 “여생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소리만 담고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무로로 보청기를 지원해 준 영천 독일보청기에 감사드리며,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영천장복이 난청 이웃에게 보청기를 지원했다.

##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 서산장복, 장애 어르신에 카네이션 선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하 서산장복)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산장복 직원들은 장애 어르신 70여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카네이션을 받은 장애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또 이날 복지관 정명기 운영위원장의 후원으로 장애

어르신에 점심식사를 제공했고, 서산시청의 지원으로 ‘폭소순환전’을 관람했다.

행사를 마친한 서산장복 김준곤 관장은 “효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따뜻한 정(情)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장복이 장애 어르신에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 “체험 통해 장애인 이해해요”

장성장북, 어린이 30여명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원, 이하 장성장북)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산초등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보장구 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휠체어, 목발, 시각장

ऐ인용지팡이 등을 체험하며 장애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진행한 장성장북 관계자는 “교육이 끝나고 아이들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잘 지내야겠다고 대답했다”며 “반짝이는 눈으로 참여해 주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장성장북이 성산초등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오감으로 배우는 숲체험 금강자연휴양림에서 현장학습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미)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으로 숲체험 현장 학습을 다녀왔다.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

학습에는 복지관 이용고객 3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5월 10일 전문 해설가의 안내로 금강자연휴양림 일대를 걸으며 숲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돌아봤다. 또 예요백을 만들며 일

상생활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현장학습에 참가한 강 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숲 속에 와서 신기한 식물도 보고 즐거웠다”며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현장 학습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남부장북이 금강자연휴양림 일대로 상반기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 불조심! 실전 같은 화재예방훈련

의정부장북, 전 직원 소방안전의식 고취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북)이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지난 5월 10일 전 직원을 투입해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전 직원 53명은 각자 편제된 위치에서 본인의 임무와 역할을 수

행했다.

의정부장북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은 화재 발생 시 통보연락분대, 소화분대, 피난유도분대, 의료분대, 후송분대 등 5개 분대로 구성돼 있다.

약 20분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는 복지관에 비치된 소화기 109개를 전부 점검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이용고객 100여명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의정부장북 관계자는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복지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의정부장북이 5월 10일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 “전동스쿠터 탈 때 비 맞지 마세요”

문경시지회, 비가림막 설치 지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가 장애인 전동스쿠터 20대에 비가림막 설치를 지원했다.

비가림막은 비와 눈이 올 때 야외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

ऐ인에게 필요한 물품이다. 문경시지회는 기본적인 자재만 구입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전동스쿠터에 비가림막 지원을 받은 장애인들은 모두 만족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비가림막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장애인이 많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지회가 장애인 전동스쿠터에 비가림막을 설치해 지원했다. ▶





# 기립 보조기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선택 및 활용 안내서'를 발행하고 보조기기의 효과와 주의사항, 선택방법 등을 안내했다. 그중 '기립 보조기기'에 대해 알아본다.

기립 보조기기는 하지 및 체간 기능 장애로 인해 서 있기가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선 자세를 지지하고 유지해주는 보조

기이다. 장애로 인해 하지 운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며 단순한 기립 이외에도 기립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조기 훈련용으로 활용된다. 운동감각 증가 및 기립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선택 및 활용 안내서』 책자. ©국립재활원 ▶



## 기립 보조기기 4가지

◆ 고정형 기립 보조기기 = 장소에 고정시킨 후,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기립 보조기이다. 작은 바퀴가 부착되어 있으나 이는 기립 상태에서의 이동목적이 아니다. 기립 상태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기립 보조기이다.

◆ 이동형 기립 보조기기 = 기립상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큰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기립 보조기이다.

◆ 기립형 수동휠체어 = 사용자 스스로 이동하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수동휠체어에 기립 기능이 포함된

이동보조기이다.

◆ 기립형 전동휠체어 = 보행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이동 및 신체를 지지해주는 장치로서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고 기립기능이 포함된 이동 보조기이다.



▲ 기립 보조기기 4가지. ©국립재활원

## 장애 상태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

척추손상, 외상성뇌손상, 뇌성마비, 척추관절증, 근이영양증,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소아마비 등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주사용 대상이다. 장애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립 보조기기의 기립빈도 및 사용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나 근거가 있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45분에서 2시간까지 매일 기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된다.

## 탈구, 욕창 감소 효과

기립하는 동안 신체는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좋은 위치로 유지해 근육이나 뼈의 강도를 개선하고 경련을 감소시킨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성장하면서 탈구 위험이 높는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독립적인 기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골

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데 기립을 통한 뼈의 자극은 골밀도 증가를 돕는다.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침상 생활을 할 경우 욕창이 생길 수 있다. 기립을 통한 뼈의 자극은 욕창 발생을 줄이고 요로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 주의사항 충분히 숙지

골절이 심한 경우 또는 치유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금지한다. 또 한쪽 하지에만 체중이 부과되지는 않는지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관절이 구축돼 있거나 골극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심장 및 호흡, 순환계통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혈압, 심박수, 기립성 저혈압 징후를 보일 수 있으니 기립 상태일 때 상시 확인을 해줘야 한다.

보조기기 사용 전에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의 브레이크, 바퀴, 좌면 및 기타 부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닥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경사진 공간에서는 사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기립 도중에 기기 이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선택 및 활용 안내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합니다.

##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증서상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배우 및 지체장애 1~3급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공 가가(가정) 방문지원 80%와 개입지원 20%
  - 사서로 신청할 경우, 지원받은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대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월) ~ 6월 22일(수)
  - 부속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일에서 도착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knat.go.kr) 신청하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립 관리 접수서에 두면, 방문지침
  - 신청일이 지정된 날, 소관기관에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접수일(신청일)을 위한 소관기관에 문의

서울 02-3479-1901 부산 051-688-2274 대구 053-839-3413

인천 032-443-2322 광주 062-415-2413 대전 042-279-2214

울산 052-229-2322 세종 044-300-2413 경기 031-866-2214

충청 043-848-2148 충북 043-250-2414 충남 041-435-2719

전북 043-286-2098 전남 061-284-2731 경북 054-830-2977

경남 055-211-2434 제주 064-710-3343



미래창조과학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내빈들과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김광한 조직위원장의 대회사.



▲ 풀마라톤 출발.



▲ 대회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 5km 경쟁 부문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어울림 부문.



▲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휠체어마라톤러들.



▲ 풀마라톤 우승자 마르셀 헤르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달리고 있다.





▲ 공군 에어쇼 블랙이글스의 축하공연.



▲ 대한약사회가 장애인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한방의무지원을 했다.



▲ 풀마라톤 국내 1위 홍석만.



▲ 풀마라톤 10위권 선수들의 시상식.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결과				하프 마라톤 - T53, 54				5KM 청년 남 T53, 54			
남자 마라톤 - T52				순위	성명	국적	기록	순위	이름	지역	기록
1	이봉준	대한민국	2:17:35	1	히로미치, 준	일본	0:49:11	1	이동철	대구	00:18:31
남자 마라톤 - T53, 54				2	유병훈	대한민국	0:50:42	2	김동현	제주	00:18:42
순위	성명	국적	기록	3	다케무라, 고키	일본	0:52:03	3	김호용	제주	00:19:12
1	허그, 마셀	스위스	1:24:46	4	와타나베, 수스케	일본	0:52:48	5KM 청년 여 T51, 52			
2	와타나베, 소	일본	1:26:22	5	다나카, 요시타카	일본	0:55:59	순위	이름	지역	기록
3	호키노우에, 코타	일본	1:27:19	하프 마라톤 - 국내				1	이정아	충북	01:04:06
4	페어뱅크, 피에르	프랑스	1:28:50	순위	성명	국적	기록	2	현은주	충북	01:57:10
5	니시다, 히로키	일본	1:28:52	1	유병훈	대한민국	0:50:42	5KM 청년 여 T53, 54			
6	타나, 와랏	태국	1:28:56	2	은운호	대한민국	1:04:26	순위	이름	지역	기록
7	모나한, 패트릭	아일랜드	1:29:11	3	이우찬	대한민국	1:07:15	1	김세정	광주	00:26:14
8	조지, 조슈아	미국	1:29:21	4	정종대	대한민국	1:09:13	2	한미영	제주	00:26:37
9	요시다, 타카시	일본	1:32:29	5	정재석	대한민국	1:09:26	3	이화영	경기	00:31:33
10	요시다, 료타	일본	1:34:48	핸드사이클 남자 H1~3				5KM 장년 남 T51, 52			
여자 마라톤				순위	이름	국가	기록	순위	이름	지역	기록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김용기	한국	0:41:44	1	장용환	경기	00:31:36
1	데 로자리오, 메디슨	호주	1:51:53	2	정수환	한국	0:41:46	2	신두영	서울	00:31:43
마라톤 - 국내				3	최기석	한국	0:46:33	3	김영옥	서울	00:34:51
순위	성명	국적	기록	핸드사이클 남자 H4~5				5KM 장년 남 T53, 54			
1	홍석만	대한민국	1:35:13	순위	이름	국가	기록	순위	이름	지역	기록
2	정동호	대한민국	1:35:27	1	이인제	한국	0:41:42	1	엄찬섭	충남	00:20:13
3	김규대	대한민국	1:38:31	2	Sueyoshi Masami	일본	0:42:32	2	임금천	인천	00:20:17
4	이기학	대한민국	1:47:24	3	윤여근	한국	0:44:45	3	엄사현	경기	00:22:13
5	유현대	대한민국	1:47:26	핸드사이클 여자 H1~5				5KM 장년 여 T51, 52			
6	이운오	대한민국	1:47:30	순위	이름	단체명	기록	순위	이름	지역	기록
7	홍수화	대한민국	1:55:06	1	이도연	한국	0:48:21	1	함옥희	대전	00:42:59
8	강창균	대한민국	2:17:34	2	이승미	한국	0:51:55	2	김숙자	경기	00:45:14
9	이봉준	대한민국	2:17:35	3	나은화	한국	0:57:23	5KM 장년 여 T53, 54			
하프 마라톤 - T52				5KM 청년 남 T51, 52				순위	이름	지역	기록
순위	성명	국적	기록	순위	이름	지역	기록	1	전미석	인천	00:24:48
1	정종대	대한민국	1:09:13	1	안영준	충남	00:25:27	2	박춘자	서울	00:31:33
2	김준용	대한민국	1:17:23	2	전경민	제주	00:25:57	3	장희수	경기	00:32:18
3	이자마, 타케히로	일본	1:17:56	3	노병일	경북	00:26:48				



# “나도 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 고정욱 작가, 성남장북에서 토크쇼 진행

베스트셀러 동화작가인 고정욱이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북)에서 토크쇼를 진행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남장북 강당에서 4월 22일 개최된 토크쇼는 “나도 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과 가족, 사회복지사, 비장애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고정욱 작가는 먼저 『들림아, 할 수 있어』라는 신작 동화의 내용을 들려 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책은 서울대 음대에 합격한 들림이의 실제 이야기에 고정욱 작가가 상상력을 보태 만들었다. 의사인 아빠와 오르간 연주자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

난 들림이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가족은 들림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엄마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반응하는 들림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

해 노력한다. 피아노 옆에 붙어 있던 들림이가 온 가족의 정성과 노력으로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고정욱 작가는 또 자신의 어

린시절부터 작가가 된 계기와 과정을 들려주었고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

하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역설했다.

패럴로는 뇌병변장애인인 성남 FM 최진희 PD, 장애아동을 둔 김해미 어머니, 김이은 사회 복지사, 김경완 대학생이 삶에서 경험한 ‘장애’에 대한 이야기 하심담회하게 나섰다.

성남 FM 최진희 PD는 “입사한 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다”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노력 끝에 당당히 PD가 될 수 있었다”고 장애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남장북 관계자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정욱 작가가 성남장북에서 장애인식개선 토크쇼를 진행했다.

## 제27회

##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문·산문, 회화·서예 등... 5월 30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7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이 작품을 공모한다.

문학상의 경우 6월 9일까지 문문과 산문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문문은 시나 동시 각각 3편 이상이며 산문은 단편, 중편, 수필, 동화 부문별로 정해진 원고 매수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전체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최우수상 2명은 상금 300만원, 우수상 6명은 상금 100만원, 가작 10명은 상금 3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미술대전의 경우 일반공모는 회화, 공예·조각, 서예, 문인화, 전각·서각에서 작품을 공모하며 1인당 2점 이내로 접수할 수 있다.

전체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최우수상 1명은 상금 300만원, 우

수상 3명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 6명은 상금 50만원, 특·임선작은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운영위원장상을 받게 된다.

추천 작가 중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3명에게 수여하는 특별상 부문에서는 창작지원금 100만원(통합 3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사진 접수는 5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2차 완품 접수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다.

이번 문학상·미술대전의 시상식은 7월 11일 서울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5층 이음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같은 건물 2,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fidca.or.kr](http://www.fidca.or.kr))나 전화(02-304-6211)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장애인아이스하키, 패럴림픽 출전권 확보

## 2017 강릉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획득

대한민국이 2017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A-pool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2018 평창패럴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한국은 4월 20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노르웨이를 3대 2로 제압하며 세계선수권대회 3위의 성적을 올렸다.

첫 골은 1피어리드 7분 13초에 노르웨이가 방심한 틈을 타 이주승(27, 강원도청)이 골문을 뒤로 돌아 쏘아 성공시켰다. 두 번째 골은 1피어리드 12분 3초

에 김영성(34, 강원도청)이 정승환(31, 강원도청)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시켰다. 2피어리드는 득점 없이 끝나고 3피어리드 9분 14초에 정승환이 노르웨이 수비수들을 모두 따돌리며 한국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노르웨이는 모튼 바에르네스(Morten VAERNES)가 3피어리드 11분 1초, 13분 33초에 골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막판 추격을 했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3대 2로 한국이 승리했다.

2018 평창패럴림픽 테스트이

벤트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5위까지 평창패럴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에 대한민국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자력으로 출전권을 확보해 패럴림픽에 3회 연속으로 출전하게 됐다.

이날 우수한 경기력으로 한국 팀의 동메달 획득을 견인해 한국 팀 BP(Best Player)에 선정된 정승환은 “운동 시작할 때부터 꿈꿔 온 평창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결승전에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대한민국 장애인아이스하키팀이 2017 강릉 세계선수권대회서 동메달을 획득해 평창 패럴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 민감도 높은 로봇 핸드 개발

### 절단 장애인, 자연스러운 터치감 인식 기대

영국 글래스고우대학에서 민감도 높은 로봇 핸드 개발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과학계는 사람의 손보다 더 민감하게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 팔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BC 등 매체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우대학 전기공학자인 라빈다 다히야(Ravinder Dahiya) 교수가 태양광을 이용해 스스로 동력을 생산하는 그래핀 소재의 로봇 손을 개발했다. 이 로봇 손은 사람의 손보다 훨씬 민감하게 터치감을 느낄 수 있어 팔이 절단된 장애인이 보조 핸드로 사용하거나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인

식할 수 있는 로봇 팔을 제작할 수 있다.

로봇 손은 '꿈의 나노 물질'로 불리는 그래핀 소재로 제작

되어 1평방 센티미터당 20나노와트의 매우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 태양광을 이용해 로봇 핸드 작동에 필요한 동력을 얻

는다. 태양광셀은 그래핀 소재의 하단에 들어가 있다.

로봇 손에 사용되는 투명 코팅 그래핀 소재는 의료 안에

삽입할 수도 있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내부의 그래핀 소재가 체온이나 땀 발생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소재는 헬스의료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혈중 포도당으로 측정하는 개인용 의료기기 개발도 가능하다. 자연광에서 전기를 얻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다히야 교수는 현재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저가의 로봇 손을 3D프린터로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350달러 정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라빈다 다히야 교수가 민감도 높은 로봇 손을 개발했다. ©University of Glasgow

## 도요타자동차, 재활지원 로봇 공개

### 올가을부터 임대방식으로 판매 계획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재활지원 로봇을 공개했다.

로이터 등 매체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4월 12일 도쿄 본사에서 재활 지원로봇인 '웰워크(Wellwalk) WW-1000'의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로봇은 모터로 구동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다리 부분에 부착해 보행을 지원한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재활을 도와준다.

도요타는 지난 2007년부터 후지타보건위생대학과 공동으로 이 로봇을 개발해왔다. 2014년부터 전국 23개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도요타는 올가을부터 일본 의료 시설에 임대 방식으로 재활지원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3년 내 100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대료는 초기비용 100만엔, 월정액 35만엔(소비세 제외)이다. 원화로는 천만원, 월정액 350만원 정도다.

웰워크는 로봇 다리와 본체로 구성돼 있으며 외형 치수는 폭 1200mm, 깊이 2710mm, 높이 2380mm이다. 무게는 전체가 약 800kg이며 다리는 6kg이다. 웰워크 사용자는 마비된 다

리에 로봇 다리를 장착하고, 로봇 본체에 있는 트레드밀에 올라가 보행 연습을 할 수 있다. 센서가 보행 중 무릎 각도를 감지, 올바른 보행 자세를 유도하며 조작 패널을 통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의 정면에 배치된 모니터와 치료자용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의 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도요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 노인의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젊은 세대의 경우 자동차 소유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 도요타자동차가 재활지원 로봇을 올가을부터 임대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TOYOTA

## 호주, 시각장애인 위한 인공지능 앱 화제

### 핸드폰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 접목

호주의 한 벤처기업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변 사물을 읽어주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했다. 휴대폰의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이다.

매리타 행을 비롯한 젊은 벤처 사업가 3명이 주변의 사물을 읽어주는 착한 인공지능 앱 '아이폴리 비전(Aipoly Vision)'을 내놓았다. 아이폴리 앱만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 물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도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앱을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엔 비용과 시간,

인터넷 연결, 사생활 보호 등이 문제가 제기됐다.

아이폴리 앱은 약 1천 가지 물체와 색상을 인식할 수 있다. 심지어 코카콜라 같은 상품 브랜드를 구별하고 종이나 화면에 나온 이미지가 무엇인지까지 사용자에게 묘사해 준다.

특히 아이폴리는 색상과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할 때 유용하며 용기 속에 들어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이 밖에 유명한 랜드마크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어 전 세계 2억 8500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AIPOLY VISION APP CAN RECOGNIZE OBJECTS AT A SPEED OF 3 TIMES A SECOND.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앱 아이폴리가 주변 사물을 읽어 준다. ©youtube





## LH, 올해 장애인 채용 100명 추진 장애인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과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4월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달성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정책

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장애인 채용 100명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LH 내 해당 부서 담당자 및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이 수행할 직무를 발굴했다. 발굴된 직무에 대해서는 공단의 모집대행 서비스와 면접 지원, 합격자 교육 지원 등 전형 단계

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100명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LH에 채용되는 장애인은 전세임대,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는 LH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공단은 전국 18개 지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LH

## 넥센타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할 것

넥센타이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맺었다고 4

월 28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

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게 하려

고 도입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와 박승규 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전방위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넥센타이어는 올해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는 "이번 사업장 설립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꿈드래

인쇄·현수막·실크인쇄·판촉물·임가공

문의 02-812-7176 홈페이지 www.workshop.or.kr 판촉물사이트 www.dreammaker.co.kr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이용 안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박경준 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애인등 편의법」 부칙(2015.1.28.) 제4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새 표지로 교체·발급이 필요하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09.12.)으로 인해 더는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 회수가 필요해 주차표지 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03.6) 이전에 발급된 표지 중 미회수, 전산상

미정비 등의 사유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주차표지 약 4만 6천건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 주차가능 표지 원형으로 변경

주차가능과 불가능표지 모두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 주차가능 표지 모양은 기존 직사각형에서 활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꾸고, 배경 색상은 기존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 모두 노란색인 것을 보호자운전용만 흰색으로 변경해 본인운전용과 구분하도록 했다. <그림 참조>

주차불가 표지 명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로 변경하되, 요청하는 사람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다.

집중교체 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다. 그러나 주차표

지 집중 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인 8월 31일까지는 기존표지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기존표지 사용차량을 위반차량으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시설대여 또는 임차용, 시설이나 단체 등도 해당된다.

교체 시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교체대상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 지체장애 6급 보행 장애인 제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현행 '보행상 장애 기준표'(2010.1.1. 시행)에 의하면 보행상 장애인에서 제외돼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가 있을 경우 반납하고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복지부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더라도 실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보호자운전용 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보호자운전용 표지의 부정사용으로 단속될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사항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525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했다.

주차구역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해왔으며 이번이 7회째다. 작년 합동점검 결과 비장애인차량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등 총 1032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1억 22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은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주차불가 표지차량 위반과 주차표지 위·변조가 뒤를 이었다.

보호자운전용 표지의 경우 해당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힘들다.

따라서 이번 주차구역 합동점검에서는 특히 업무시설 등 직장에서의 보호자운전용 표지 부정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호자운전용 부착차량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위와 같은 불법주차 단속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구역, 주차면수 확보 등 주차구역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부적정 시설에는 시정명령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 위반사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복지부, 지자체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 쉽게보는 복지지원체계



##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 보장을 위한 긴급복지제도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김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넉 달 지 월세가 밀린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김 씨

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집주인과 건설현장 동료, 식당 등 4개에 불과했으며, 자녀들과는 연락을 끊은 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살아왔다. 김 씨는 월세가 넉 달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 최대 월 38만원의 긴급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빈곤층 등 위기가구의 인간다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소개한다.

신성철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 ◆ 긴급복지 지원제이란?

##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가.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이혼 ②단전 ③휴·폐업 ④실직 ⑤출소 ⑥노숙

## 나.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3만 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 ~ 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 ◆ 그밖의 위기가구 지원사업

## 1. 가족역량 강화지원

##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3인 가족 기준 262만 1천원) 이하인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회복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 (2)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지원한다.

##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 (4)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2.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1) 지원대상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2)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 인터뷰 한국 휠체어육상 스타 김규대



“오래오래  
즐기며 경기  
하겠습니다”

지난해 리우패럴림픽 마라톤에서 한국인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김규대. 베이징부터 리우까지 3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13년 리용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800m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가던 육상 스타 김규대는 지난해 리우를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출전한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에서 부담을 내려놓고 달렸다. 그는 이제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평생 즐기면서 휠체어 육상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Q. 지난해 리우패럴림픽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그 이유는?

A.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4학년이 된다.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시작한 천문학 공부를 더욱 깊이 이어가고 싶다.



Q.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여러 번 '최초'의 기록을 잡아치워 왔는데 은퇴가 아쉽지 않은지?

A. 아쉽지 않다. 만족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올 줄 모르고 달렸는데 국가대표도 하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행복했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하지만 계속 휠체어 육상을 할 계획이다. 예전처럼 몇 위안에 들겠다. 기록을 얼마나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즐기면서 오래오래 달리고 싶다.

Q. 그동안 학업과 운동을 병행했다. 학업만큼이나 운동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었나?

A. 미국가기 전까지 4년간 무역회사에 다녔다. 그 때는 일과 운동, 영어 공부도 다 잘하고 싶어서 욕심내다 탈이 났다. 욕창이 생겨 녀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후 시행착오를 겪다 집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터득했다.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시 실천처럼 집중해서 빠르게 달렸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운동에는 양과 질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난 내 조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Q. 리우 휠체어마라톤에서 국내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42.195km라는 긴 구간을 달리며 기록을 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A. 컨디션이 좋은 선수 뒤에 바짝 붙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달리다 마

지막에 역전하는 전략이 성공했다. BMW의 휠체어 공기저항 연구에 따르면 앞선 휠체어 뒤에 바로 붙으면 힘을 30% 아낄 수가 있다. 즉 앞의 선수가 100의 힘으로 밀면 뒤의 선수는 70의 힘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다. 패럴림픽 기간에 다른 휠체어 육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며 컨디션이 좋아 보였던 타이의 프라왓 와호람 선수 뒤에 붙어서 달리다 마지막 500m 남았을 때 치고 나가 3위로 들어갔다.

Q. 휠체어 육상은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A. 평범한 대학생으로 군입대해서 UDT(해군 특수전여단) 복무 중 낙하산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재활 도중 TV에서 휠체어마라톤 중계를 보는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맘 흘려 운동하고 싶었다. 휠체어육상을 하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2005년 경기용 휠체어를 사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만에 그만 뒀었다. 쳐 박아 두고 석 달간 놀러 다녔는데 계속 생각났다. 휠체어가 비싼데 아깝기도 했고, 다시 시작했는데 재미있었다. 맘 흘리며 활력도 찾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며 점점 빠져들었다. 목표도 생기고 열정도 생겼다.

Q. 김규대 선수에게 휠체어육상이란?

A. 내 인생이다. 평생 할 것이기 때문이다. 60살 넘어 70대에 타고 있지 않을까. 이번 서울국제휠체어마

라톤대회 참가 선수 중 최고령인 일본의 이와타 노보루처럼 나도 오래 오래 건강하게 휠체어마라톤을 하고 싶다.

Q. 다른 장애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A. 장애인에게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힐링도 얻을 수 있다. 요즘엔 휠체어육상 말고도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다양하다. 경기용 휠체어 등 장비를 대여해 주기도 해서 예전처럼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다양한 종목에 도전하고 즐기는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Q.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바는?

A. 휠체어 육상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스피드 센서를 떼버리고 천천히 즐기며 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처음부터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는데 스피드에 연연하면 조금씩 쉽게 지칠 수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며 달려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늘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일단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다. 천문학 전공을 살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차차 더 고민하려고 한다.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힘을 보태고 싶다.





## 사회복지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의 한계

나광석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시설국

우리나라 250만여 명의 장애인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중의 누군가는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다른 이는 복지관에서 재할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간다. 그중 일부는 장애인단체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권익을 지켜나갈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실생활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 해에 들어서서 우리 법인은 대전과 경북에 새로운 복지관 2개소를 추가로 위탁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경력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한계와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의 한계

#### 1) 장애인단체 경력인정의 한계

현재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90여 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사 근무 경력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사단·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는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경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참고(중앙 부처별 장애인단체 등록 현황)

부처	등록 장애인단체	부처	등록 장애인단체
합계		94개소	
외교부	5	농림축산식품부	1
통일부	2	환경부	2
행정자치부	7	여성가족부	2
문화체육관광부	22	고용노동부	17
보건복지부	34	국토교통부	2

출처: 국회 입법 조사처, 2012년 10월 1일 자료 재구성

#### 2) 유사경력 인정 대상의 한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을 살펴보면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영역별로 의료법, 교육법 등 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사를 제외한 심리(미술)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이 불가한 상황이라 해당 치료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외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직에 비해 급여테이블이 약한 관리직 중 운전, 시설 등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2.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대안

##### 1) 장애인단체 경력인정에 대한 대안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듯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동일 자격을 갖추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기존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사단 및 재단) 이외에 타 부처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 2) 유사경력 인정범위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유사경력 대상 외에 심리(미술)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에 규정을 추가하여 해당 직무의 경력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직과 시설직 등에 대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직종에 근무했을 경우 그 유사경력 인정에 대해 인정하는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의 영입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범위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서술한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복지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사경력 인정에 많은 한계점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서비스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유사경력 인정 범위가 안고 있는 한계성과 차별성을 없애는 정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정 및 조례 제정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곧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인은 전국 23개 장애인복지관과 29개 직업재활시설과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를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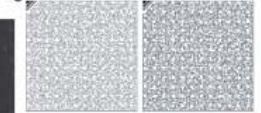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 보람 제285호 2017년 5월 22일

편집장 / 영민호 기자 / 오창석, 이정희 디자인 / 이희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음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명예 대사들 전(展) 개최

서울 전시회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7월 2일까지

▲ 5월 10일 이음센터에서 이스라엘 장애 재단 대표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활동을 알리는 강연을 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명예 대사들 전(展)』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장애인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종로구 대학로 112)에서 5월 9일부터 21일까지 전시회가 열렸다. 이어서 5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는 이스라엘의 장애 어린이재단(일란 ILAN) 및 하우스 오브 휠스 재단(House of Wheels)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주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인 장애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재활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 및 졸업생들의 회화 작품을 소개하고 있

다. 이 전시회는 그림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의 역량이 강화됨을 보여주자고 함이며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장애인 재단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특별 순서도 마련됐다. 지난 5월

10일 오후에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에서 이스라엘 장애 재단 대표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활동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하임 호센 대사가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다. 하임 호센 대사는 자신의 딸

도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라고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장애인 복지정책 역시 한국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이번 한국에서의 전시회도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작품전시회를 다른 나라에서 갖게 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 장애인 복지 소개 ①]

##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재단

(일란 ILAN Israel Found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이스라엘 장애 어린이재단(일란 ILAN Israel Found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은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39개의 지부와 스포츠센터, 주간센터, 호스텔, 쉼터 등 30개 이상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1952년 설립 이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소아마비, 뇌성마비, 근육병과 같은 신체장애 및 신경계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란의 비전은 신경근육 장애인들이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의사들이 1953년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한 ILANSHIL(일란실)을 설립하면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인종 및 성별, 종교와 관계없이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2만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해 봉사하

고 있다. 어린이 발달 센터, 특수학교와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일반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이스라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프리즈(Israel Prize) 공로상 부문을 수상했다.

일란이 펼치는 장애인 지원 활동은 재활, 스포츠, 사회활동, 교육, 취업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뉜다. 각 활동영역이 서로 유기적인 순환을 거쳐 참여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과 활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재활

일란의 가장 큰 목표는 신체 장애인들의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사회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일란은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휠체어, 컴퓨터와 같은 사회 복귀를 위한 아이템을 구

입해주고 있다. 또 치료 목적을 위해 승마, 수영과 같은 다양한 재활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일란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



▲ 일란의 가장 큰 목표는 재활을 통한 사회 참여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치료 목적을 위해 다양한 재활치료를 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호스텔도 운영하고 있다.

#### ■사회활동

여름 캠프 : 매년 전국의 신체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한 주 동안의 숙박과 제반 시설이 포함된 캠프 활동으로 수영과 승마 등 스포츠를 비롯한 방대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연, 워크숍,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름 캠프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다. 종종 자원봉사자들과 참여자들 간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소셜 클럽 : 소셜 클럽은 신체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비장애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이다. 문화적, 교육적 내용을 공감하며 또래간의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 활동 : 유치원, 학교, 주간 센터에서 장애 어린이의 예술적인 소질을 발견하고 능

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 및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일란의 사회활동 중 소셜 클럽 활동.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외부에서 열린 '젊은 명예 대사들 전(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계 인사이트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반년 전쯤 우리 지역에 역을 가로지르는 지하철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한 적이 있다. 기념사 등에서 13억 원을 들여 계단식 보행차도를 엘리베이터로 개선해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했다. 덧붙여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작은 보답'이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로서 사회적 배려쯤으로 생각해 두었는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열자리에서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13억원을 들여서 만드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지하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식 통로를 승강기로 개선한 것이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과 이용자

인원 등을 따져 과잉투자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타당한가?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지하철도의 계단식 보행차도를 승강기로 개선한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다. 오히려 2003년 지하철도를 개설할 당시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해야 했는데 10년이 훨씬 지나서야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첫 번째로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 시설 설치와 개선 및 운영, 예산 편성 및 평가 분석 등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투자는 배려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 이행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개선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면 직무 태만이 되고, 시행 가능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긴다면 공무원 직무유기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1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621명이었다. 이중 노인 사

망자 수가 1814명이었고 어린이가 65명이었다. 교통사고 노인 사망자 1814명 중 횡단 중 사망이 507명, 차도보행 중 사망이 95명, 길가에서 사망 73명 등 보행 중 사망자가 701명으로 38.6%나 된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운전 중 법규 준수나 안전운전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운전 중 법규준수나 안전운전이야말로 일반 시민의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닐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면 제보하고 잘된 부분에는 박수를 보내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역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시설이 있는

지 자체 점검해 관련 부서에 제출할 계획을 수립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속히 개선되긴 어렵겠지만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어울리는 지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장애인복지관장의 취임 다짐을 일부 이행하려 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대원 관장



## Quiz

-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풀마라톤 전체 우승자와 국내 1위 선수의 이름은?
- 4월 20일 대전 동구에서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은?
-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의협력부 (e-mail: news@kappd.or.kr)

## 독자의견

〈새보람〉을 읽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자립을 위해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국가가 더욱 애써야 함을 느낍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 운동도 다루고 평소 식습관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 개선하는 정보와 교육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노혜미

##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대한약사회

**당첨자** 경기 용인시 노혜미  
서울 구로구 이기영  
경북 안동시 김재성

중증장애인생산물시장  
곰드래

<http://www.gabrielcenter.or.kr>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원하시는 문구, 이미지 예쁘게 넣어드립니다.  
믿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주문제)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04-12  
가브리엘직접장 Fax. 02.951.9708

필요한 제품 주문에 주세요!  
Tel. 02.951.9707



## 복지마당

## 수구 꼴통... 기성세대를 위한 변명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고대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그리스 유적지의 어느 벽면에 남아 있는 글귀라고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라고도 한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나이를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젊은 계층의 자유분방함이나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기성세대를 향해 도전하는 태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기성세대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해주고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양육하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면 기성세대가 겪는 마음의 상처가 깊고 상실감이 매우 커 보인다. 물론 이러

한 결과 역시 기성세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100년의 한국사를 놓고 생각해보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과 식민지 통치 그리고 해방과 남북분단, 6.25전쟁 등 가슴 아픈 역경의 시기였다. 특히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피를 흘린 역사는 쉽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이나 그 간접적인 경험을 나누며 자라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이념갈등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특히 양비론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의 잠재의식 속에는 중간지대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삶의 가치 기준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간 사건 하나하나가 남다

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권 의식도 성장한다. 인권 신장에도 역사가 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듯이 인권의식 또한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 성장해왔다. 주권이 없는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착취의 대상이었다. 전쟁의 총부리 앞에서는 인권이 위협 받고 살해당해야 했다.

입에 풀칠하는 잿더미 위에서는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인권이 잊혀졌다. 간난신고(艱難辛苦)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하며 타국의 탄광갱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다른 나라 병원에서 언어소통도 어려운 가운데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다.

또한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싸웠으며 중동의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의 경제성장

과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지난했던 시절에 희생하며 터전을 닦았던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계층 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한참 부족하다.

젊은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거칠 것 없이 활달하며 자유분방하다. 논리적이고도 유창하지만 그 사용하는 언어에는 절제의 미덕이 없고 직설적이다. 선택하는 단어가 듣는 이의 생각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 수구 꼴통... 등등 이해하기도 어려운 낱말이 성행한다. 그러나 근

본이 없는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답답하게 보이고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리타분함이 많을지라도 새로운 세대의 뿌리는 기성세대인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은 모두 인권의식도 없던 시대를 헤쳐 오면서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세대이다. 부강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한 시대를 헤쳐 온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미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길 부탁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중앙회장 직무대행



## 발언대

## 벼랑 끝에서 죽은 나무의 소리를 듣다.

강원도 정선의 화암팔경(畫岩八景) 가운데 제7경이라는 물운대(沒雲臺)를 찾아갔다.

바위 끝 낭떠러지와 주변 풍광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단애(斷崖)의 끝에 다가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엄습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기증과 울렁증이 밀려왔다.

절벽 끝 바위틈을 비집고 뿌리내리며 살다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사진을 담았다. 오랜 세월 푸른 잎 청정한 기품을 뽐내었을 그 나무가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여전히 살아있다면 얼마나 멋지게 보였을까 생각하니 아쉬움이 더했다.

죽은 나무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절벽위에서 바위 끝에 매달리듯 살아온 날의 당당했던 기품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나무동치는 그 밑동에서부터 나선을 그리며 가지 끝에 이르기까지 운문을 비틀며 자라 올라갔다. 마치 단단하게 여러 겹으로 꼬아놓은 커다란 동아줄처럼 보였다.

뿌리내린 곳은 벼랑 끝, 주변에 의지할 것은 전혀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의 몸뚱이를 붙들고 일어섰던 그 강인함을 여태껏 드러내고 있었다. 경이로움이 밀려왔다.

자연에서 자라나는 생명체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삶을 개척한다. 비록 삶의 터전을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기에 주어진 그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을 펼쳐며 생존해 왔다. 인간의 손길과 발길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절벽위의 나무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 위해 찾아왔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스치고 발길에 치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한 때 야생화 사진을 담기 위해 전국의 야생화 자생지를 찾아다녔었다. 어느 이른 봄날 야생화 군락지에 들어갔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새싹을 틔운 봄의 전령사들이 화사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저 피어난 꽃들을

사진으로 옮겨 담느라 흥분된 마음을 추스르기에 바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남겨진 발자국이 후벼낸 땅의 속살이 스쳐지나갔다. 그 밑에서 무참히 밟혀 뭉그러져있는 새싹이 눈에 띄었다.

발에 밟힌 야생화 새싹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들려왔다. 무심코 밟는 그곳에서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꽃의 최후에 대한 미안함과 이기심에 대한 각성의 마음이었다. 그 이후로 야생화를 담으러 산아를 해매는 것을 그만 두었다.

수많은 고급 카메라가 보급되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카메라에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고 색감과 밝기를 조정하여 최상의 사진이 찍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첨단 장비(?)로 무장한 프로작가에 비금가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때를 이루어 몰려다닌다. 풍경 사진과 꽃 사진 그리고 새와 곤충은 물론 온갖 피사체를 향해 속사포 소리와 같은 셔터의 울림을 방출하고 있

다.

금년 봄 어느 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해마다 포란하고 새끼를 키워오던 유명한 서식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물상식한 사람들이 관측과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동지를 은폐해주던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못된 인간의 이기심이 그나마 사람 주변에서 함께 숨쉬기를 원했던 생물을 쫓아낸 것이다.

짧은 봄이 가고 여름인 듯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연두색 어린 이파리들이 뜨거운 햇살 받으며 나날이 진한 초록으로 바뀌며 단단해져 간다. 자연의 순환은 어김이 없어 예측 가능한데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염민호 대외협력국장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선거 투표 및 개표장소 공고

2017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8대 회장선거에 있어  
투표 및 개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투표시간 : 2017년 5월 31일(수) 14:00 ~ 15:30

나. 투표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소재)

다. 투표시 본인여부확인 신분증 범위

○ 회원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라. 개표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2017년 5월 19일

제8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